

범여권 '경선 룰' 합의 도출 진통

여론조사 반영·모바일 투표 등 협상 제자리

'컷오프' 방식·시기 대통합신당에 위임키로

범여권 대선후보를 뽑을 '경선 룰' 논의의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통합신당 8월5일 이뤄지는 미래 창조대통합민주신당(가칭) 창당 후, 늦어도 8월 중에는 '컷오프'(예비경선)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빠듯하지만 정작 주자별 이견 때문에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탈당그룹과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30일 각 진영 대의인 회의를 하고 '경선 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대통합신당 국민경선본부로 "공"을 남긴다는 복안이다.

앞서 국경추는 이달 초부터 각 진영과 정기적으로 '룰 미팅'을 갖고 9월15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순회 국민경선을 실시, 10월 중순께 후보를 선출하는 한편 본 경선에 앞서 컷오프를 실시키로 하는 등 일부 합의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반영, 모바일 투표, 선관위 위탁 여부와 지역별 가중치 조정 등 주자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엇갈린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여론조사와 관련, 범여권 지도도 1위인 손학규 전 지사 측은 민심

반영을 이유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진영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등 일부 진영이 제안한 '모바일 투표' 적용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종두, 간접투표 등의 부작용 때문에 결론이 나지 못했다.

한나라당 경선일인 다음달 19일 전후,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실시될 예정인 컷오프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당으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통합 작업의 추이에 따라 추가로 합류할 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본경선의 '1차 관문'인 컷오프 통과를 놓고 주자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손 전 지사 측은 컷오프에서도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비율을 절반 가량만 반영할 것을 제안했으나 상대적으로 조직 면에서 강세인 정동영 전 의장 측은 선거인단 비율을 높이자

입장이다. 여론조사 응답층을 일반 국민으로 할지, 범여권 지지자로 제한할지에 대해서도 친노, 비노 주자 간의 견해 엇갈리고 있으며 정책배의원 등 일부는 컷오프 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소주자들이 컷오프에 반발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군소주자군 중 한 진영 측은 "TV 토론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탈락자가 나올 텐데 굳이 컷오프를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또 다른 측은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한 국민경선이 정당성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연립뉴스



대통합신당 당직 인선 논의 3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창준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정대철 대통합신당 창준위위원장과 김한길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 위원들이 상임중앙위원회와 당직 인선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립뉴스

■ 대통합신당 대표인선·정체성 논란

단일체제냐 공동대표냐 합의점 못찾아 정대철·김근태·오충일·백낙청 하마평

현 당명 정기간 지분다툼 흔적 많아 변경 불가피

범여권의 '제3지대 대통합신당'인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가칭)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곳곳에 난관이 산재해 있어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발족한 신당 창준위가 다음달 5일까지 중앙당 창당대회를 끝내면 13일 만에 신당 창당을 완료한다. 창준위는 지난 26일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29일 충북도당 창당대회까지 마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7개 시도의 창당대회를 끝냈다. 또 다음달 3일 부산시당을 창당키로 했고 5일까지 추가 4일만에 관할 100만명을 돌파한 화제작이다.

정체성 논란=하지만 정당명칭과 당헌·당규, 정당·정책 등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다. 창준위는 이런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다음달 3일 최고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사용 중인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이란 당명은 가치있긴 하지만 너무 긴데다 제 정파 간 지분 다툼의 흔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실무팀을 중심으로 미래, 창조, 평화, 민주 등 용어가 들어가는 당명을 정하자는 기조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창조당', '미래창조민주당'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파 간 이해에 따라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다.

◇대표 선출=창준위는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당의 지도체제를 단일 체제로 할지, 공동대표 방식이나 집단지도체제로 할지부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단일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양측이 공동대표 체제를 이룰 경우 틀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기성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사회 인사에게 당 지도부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 인사들의 하마평 뒤에는 '비토론'이 따라붙고, 시민사회 인사들은 대표직을 고사한다는 데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대철 상임공동창준위원장,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 문화선 전 의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또 이수선 전 총리나 장상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오르내리고 있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신당 상임공동창준위원장인 오충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승헌 변호사 등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오 목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전국구 의원을 제안했을 때 세 차례나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립뉴스

민주 지역 단체장·의원 엇갈린 행보

전남 단체장 8명 '통합 실현해야'

도의원 24명·광주시당은 당 사수

중도통합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통합'과 '민주당 사수'로 나뉘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3지대 대통합신당 합류나, 민주당 사수'의 갈림길에서 고심을 거듭하자 통합파와 사수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종득 목포시장 등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시장·군수 8명은 30일 "정파적·개인적 이해득실을 떠나

통합을 실현시켜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50년 역사를 지닌 민주당의 정체성이 인정되고 민주당이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전남지역 중도통합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10명 가운데 오현석 여수시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중인 박희현 해남군수를 제외한 8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큼 당분간 박람회 유치가 전념하겠다"며 서명을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황병순(보성)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24명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중도개혁주의에 입각한 대통합이 아니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 사수' 입장을 밝혔다.

중도통합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시장 대회 의실에서 최경주 위원장 주재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직자 간담회를 가진 뒤 "도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정치사기극에 통합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동참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본 열세력들은 통합민주당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 등 모두 18명이 탈당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일태 영암군수와 류선열 영암군의회 부의장, 류오선 군의원 등 3명도 지난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범여권 '화려한 휴가' 덕 볼까

흥행팬 지지층 결집 도움 대선주자·의원들 관람 붐

범여권 대선주자와 의원들 사이에는 요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이 붐을 이루고 있다. 화려한 휴가는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인 주인공이 시위 진압군에 동생을 잃은 뒤 시민군이 되지만 자신도 진압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다는 내용으로, 개봉 4일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 화제작이다.

범여권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5.18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흥행이 되면 아무래도 '반(反)한나라당' 전선 확대,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는 데 있다. 대통합신당 합류를 위해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친노(親盧) 중진인 유인태 의원의 동생 유인택 기획시대 대표가 이 영화의 제작자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

5·18 당시 MBC 기자로 현장 취재했던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은 30일 신촌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본 뒤 "당시 여권 반바탕에 앞서 죽어가는 광주 시민을 지켜보던 한때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광주의 희생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29일 용산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뒤 팬클럽 회원 등과 가진 호프미팅에서 "(광주 항쟁 당시) 발포 명령 계통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국민의 정부가 씨를 뿌리고 참여정부가 속성시킨 것을 완벽하게 끝낼 다음 정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정배 의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25일 이 영화를 관람했고 한명숙(한명숙) 전 총리는 26일 광주에서 상영관 한 곳을 통째로 빌려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범여권 일부 주자 진영에서는 이 영화를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견제하면서 '적자본'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중포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손 전 지사는 조만간 이 영화를 관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 영화 개봉 후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립뉴스

새 품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분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동흥동)] 529-8111

문제풀이 핵심요약정리+단원별문제풀이(7월, 8월) 기본서 특별반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풀이(개강 9월3일) 기초없는 분을 위한 강의

개강 8월 1일 (주,아) **국비무료** 고용보험 기업근로자 교육비환급
 www.gjserom.com ●전국 합격률 1위 학원 전국 25개 체인 학원 ●서울새마을고시학원 광주성북 5년(최고 합격자 배출) ●저자 직강 교수전원 서울에서 출강 ●529-8111(개강일 전 접수비)

공인중개사전문! 새 품 행정고시학원 본원 361-8111
 >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는행 바로 옆 도영빌딩
 전국합격률 1위! 새 품 공인중개사전문학원 본원 529-8111
 > 계림동 구시청사거리 대안빌 옆 청송빌딩 6층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개월~1년 시험일: 10월28일
 ▶주택관리사 12개월~1년 시험일: 10월21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회계) 주택관리사 시험일: 10월21일
 ●모집대상
 ▶졸업후 2년 이내의 학력 인정자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 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석차생 정액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생담임→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강료 : 200만원 (국비지원)

2. 취업유망과정

●모집과정
 ▶정보화(1)과과정 윈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망리더쉽
 ▶정보화(2)과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모집대상
 ▶고용보험제기 지원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기타사항
 ▶수료후 100% 환급
 ●접 수
 ▶수강절차 : 훈련생담임→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업시간
 ▶월수금 19:00~21:00(기초) ▶화목 19:00~21:00(기초)

●노동부직정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현대 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7·9급 공무원 대특강
 = 特報: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전호의 기회!! =

일세무직 2700명 (9월 6일 시행(1200명 모집) (사상초우)
 9월 13일 시행(1500명 모집) (대모집)
 9월 13일 시행(1500명 모집) (대모집)

개강 8월 1일 주야반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si.co.kr 222-4560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개강일시 : ●주중반:2007.8.10(금)
 ●주말반:2007.8.11(토)

●모집기간 : 7.9(월)~8.10(금)
 ●수업기간 : 2007.8.10~11.16(4개월/15주)
 ●수강료 : 250,000

●모집인원: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예)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
 ●회부여(해당과목)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가성비합격률, 교육행정, 세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국관리, 기술직

79급 공무원 특수반 첫진도
 전남일일·교정문제풀이

월수금 3,000여명
 전남교육행정 문제풀이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전국총 첫진도=사면예약접수)